

갑신년 경기 '서서히 회복'

벤처도 IT산업 회복과 함께 '호조'

글 _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20년 전인 1884년 갑신년에는 개화파가 수구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변이 있었다. 그 당시 정치가 국민적 통합기능을 상실하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었고,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외세의 침입에 의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국내 모 그룹의 회장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구한말에 비유한 적이 있다.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극한적인 반목과 투쟁만 일삼다 보면 또 다른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다소 흐린 가운데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2004년도의 전망에 대한 자료를 보니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데 비해 국내 정치에 대해서만 전문가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갑신년 경제, 한마디로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으나, 햇빛이 쨍하게 들 것 같지는 않고 다소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날씨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먹구름이 물러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서 우선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 경제 역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체로는 4%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4%, EU 2%, 일본은 1.5%, 중국은 7.5% 내외다.

벤처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그널은 미국 IT산업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이 IT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PC와 소프트웨어, 휴대용 단말기, DVD, 비디오게임,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에 따라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중국도 침체된 IT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스스로 인하여 본격적인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4년도에는 행정, 금융, 교육, 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IT는 미국과 중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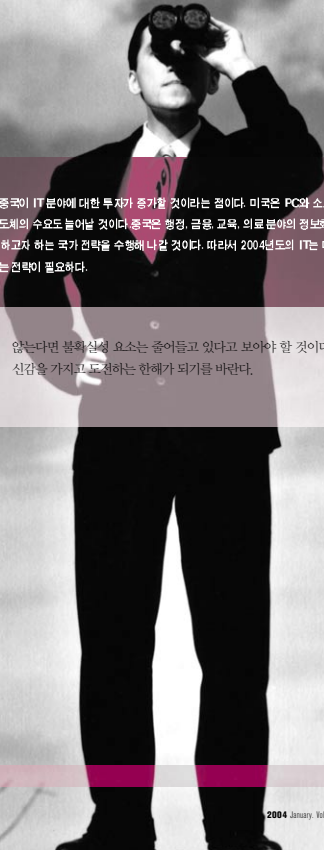
국내 경기는 경제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 4.3%,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 5.8%이다.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동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주도에 의한 국내경기 회복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내수가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 가계신용 축소에 따른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수요침체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지속시키게 되어 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당분간 내수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틈새시장을 찾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

불확실성 타일 속 롤러코스터타기는 벗어날 듯

e-Learning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도 맞춤형 교육과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성장이 전망된다. 올해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디지털 TV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 디스플레이산업 등이다. 디지털 TV는 디지털 컨버전스



벤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미국 IT산업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이 IT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PC와 소프트웨어, 휴대용 단말기, DVD, 비디오 게임,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에 따라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행정, 금융, 교육, 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의 IT는 미국과 중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속화와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IT기술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온라인화 분야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및 모바일 금융시장 등 모바일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도적 환경측면에서 보면 벤처 M&A 관련법규의 정비에 따라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쟁강도가 완화되면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력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코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벤처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 통합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재경부의 방안은 코스닥 시장을 통합거래소 내에서 독립된 사업분부로 운영함으로써 코스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 코스닥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여 기술집약형, 성장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거래소 통합은 벤처금융 분야에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불확실성 터널 속의 롤러코스터 타기를 벗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에 모든 약재는 다 드러났고 더 이상 가시거리 내에서 돌발적인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 요소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